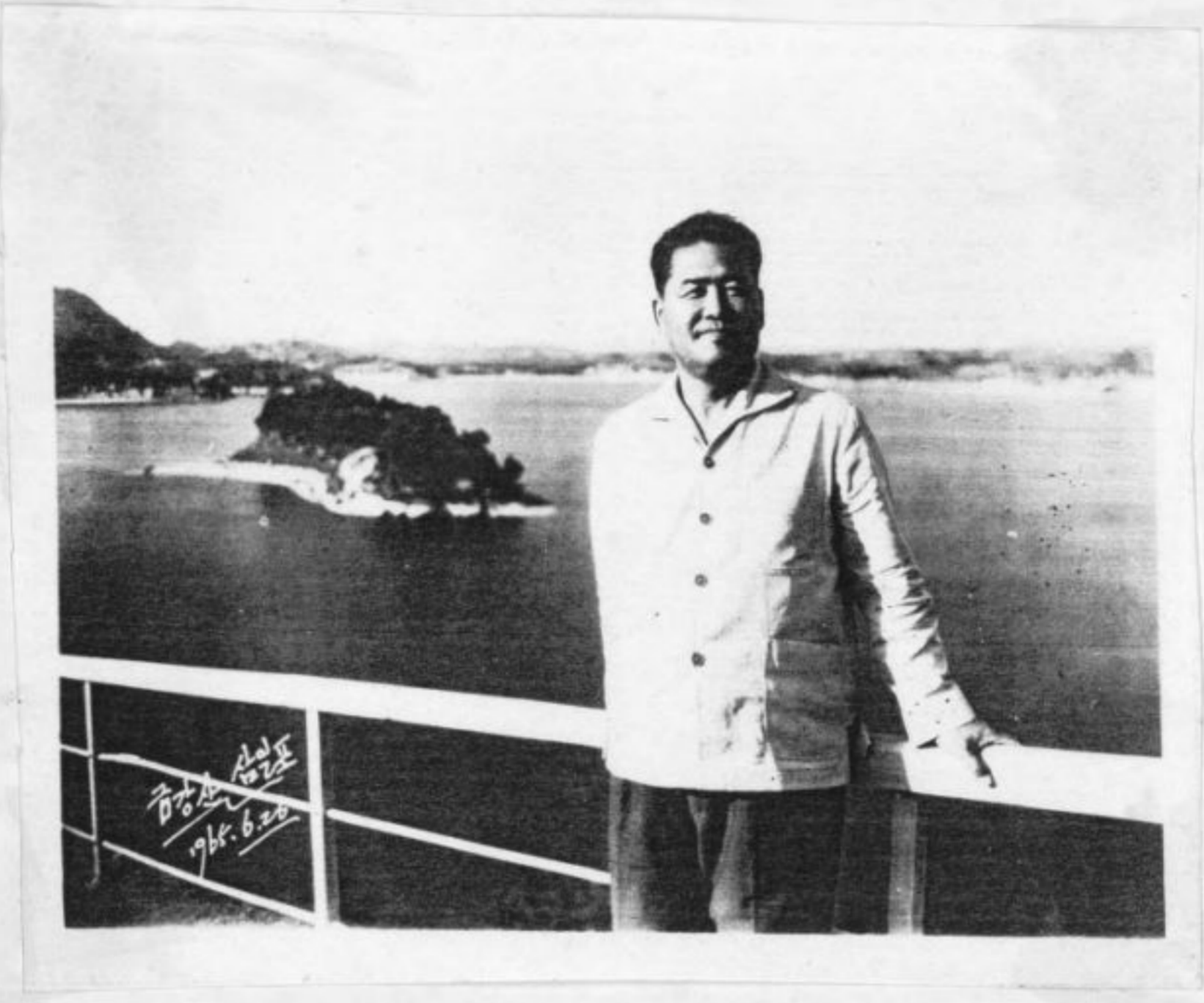


6



박영선생

박영 (본명 박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선생은 1915년 11월 9일에 남한 대전시
 에서 해동민 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박영선생이 5세가 되던해에 박영선생의 부
 친은 아들 형제 2남 4녀를 등에 업고 동생과
 함께 두 세대는 중국 동안주에 이주하여 갔댔다. 그
 러나 그곳에도 조선에서 일러의 압박을 여기지 못하
 여 넘어온 여주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 발붙
 일 없었고, 노간밭을 일토누 없었따 이런 환경에
 서 박선생 부친 형제는 하필이면 구렁지에 발
 들트리게 되였다. 러시아 땅에 넘어온 이들은 영동

2
변강 부어플 구멍이 직위를 잡고 너은 양아 혼한 땅을
마음대로 갈아서 농사를 짓게리었다. 볼래 어 지명은
호지가 아쿠비목하여 농사군 료에게 년년히 가오이변
업형한 풍광은 어루게 하였다.

박영 선생의 부모들은 이곳에 어루히어 온것은 어루행
복으로 생각하고 흥복한 생활이 안락하게 지내었으나
고행은 어나 이곳에와 직위잡은 박영선생의 부모들의
가정에는 아들 5형제가 더 복되, 언제든 아들 부형
제 딸 하나가 귀엽게 자라났다. 박영 선생은 그중에서
제 2남이였다. 박영 선생은 군소^리에서 1931년에
초중을 마갑한다음 원릉변강에 유일한 한문사전을
1934년에 필하고 자기논에 돌아와 교편을 잡고
1937년 원릉으로 복히 한문강제 어루때까^치일하
시였다. 강제어루 당시 박영 선생 부모들은 처음에는
카자흔 공화국에 도착하였다가, 니중에는 두르베허
다유 권은국에 정복하게리였다. 박선생은 다유 권은
주 여러 구멍에 돌아단내런시 교원 일을 계속하시였다.
1938년드에 박선생은 공화시아 국립종합대학 력사
학부 흥신과에 입학하였다. 흥신과 입학하게 된것은
가정의 경제 형편으로 말미야나 그렇게 리였다.
박영 선생은 1944년에 종합대학 력사학부를 필
하시어 화유 권은국 중립직구멍 가라복고중 력사
담당교원으로 일하시였다.

박성 선생은 본래 인물이 밝을수록 유별하여 능숙한
 역사학 선생으로 여러 학생들을 교양시켜 주면서, 또한
 학부형 중에서 위인이 어떤 - 저만 하지 않았다. 선
 생은 철저한 행정 관리 사업은 특출하고 다만 학문과
 유 사업에만 전력을 다하여 맡으셨다. 박 선생은 1941
 년에 아주 위난 있는 교원으로 조선공산당의 영예롭게
 임명 되었다. 일 년이 경과하면 초급당 관급은 당세포
 책임이어서로써 권한권리가 일장된다. 박 선생은
 1948년 부터 당위장관으로 활동하시면서 젊은 세대
 교육에 전력을 다하여 사회 운동사업에 출로하셨다.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946년 8월에 박 선생을
 북한 정무원에 파견하여 극서공산당 원수의 위한 북한국
 가 건설에 모든 힘으로 이바지하게 하였다.

박 선생은 북한에 도착하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평양 국립사대 역사학부 교원으로 일년동안 지내신다. 그
 제독하여 사대 역사학부장으로 수십년간 일하시다가
 1985년에 공화국 건국 40주년을 기념하여 사회부장관
 발령이면서 평양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었다. 평양에서
 행복한 생활이란 어디있는 말이지만 비교적, 자식들
 같이 무행하게 지냈던 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박 선생
 이 역사학부장으로 평사대에 계시는 때에 학생들에게
 서 돌아간 말들을 회상한다면 다음과 같은 말 한바디가
 생각 된다. 그것은 학생들이 박 선생 앞에서 시험을 볼
 때에 얼마나 박 선생을 어렵어 하였는지? 평양사대에
 서는 졸업장을 주자면 "박영고개" 를 무척히 넘어야 한

다고 하였다. 이렇게 학생들 군중속에 워낙 있고 교수
 사업은 열심히 하는 박선생은 사상검정사업에 걸려서 약
 5년간 출애국가 있다 다시 평양에 돌아와 뱃터박씨
 상 떠날때까지 살았다. 한번은 알아다시며 살고
 있는 딸이 박영선생은 만나볼차로 평양에 찾아가면서
 양복 헌벌라 새 구두 한 켤리를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
 에게 올리니, 박선생은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씀이 - 아
 이런것은 이 평양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면 안된다 - 고 하시면서 - 이것을 시장에 나가서 팔
 아 좀 남은것을, 남은것과 신것은 사가지고와라
 하시었다. 그 말을 들은 딸이, 지방천국이란 평양이 그렇게
 흥복하지 못한것은 사실이다.

박영선생은 1992년 9월에 평양에서 서거
 하시었다.

1999년 10월 10일 하동권호.